

8 종합

전자정보·응용과학관 공간 개편 사업 무산

배연우 기자 yeonwoo.bae22@khu.ac.kr

【국제】전자정보·응용과학관 공간 개편 사업(공간개편사업)이 응용과학대학(응과대)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자정보·응용과학관은 3개 단과 대학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기존 건물에 신설 학과가 생기며 재학생 수가 증가했고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간개편사업은 학생 주도로 기존 공간(과방, 동아리방, 2층 공용 공간)을 통합공간(라운지, 스터디룸, 통합 열람실, 동아리 연습실, 실험실, 카페)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응과대 불참은 응과대 학생회가 사업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응과대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가 찬성 45.8%, 반대 54.18%로 나오며 결정됐다. 학내 커뮤니티 에

브리타임 게시글엔 “애초에 응과대 상의도 없이 개편안을 내놓고선 응과대가 참여 안 한다니 원래 쓰던 공용 공간마저 전정소용대 공간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진행됐던 전자정보대학(전정대)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용대)의 교육·편의시설 효율화·개선사업 학생 총투표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응과대 학생을 대상으로는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응용과학대학 빠진 전자정보대학관 개선사업 투표 논란/대학주보 1714호/2023.12.11.)

공간개편사업에 응과대가 불참함에 따라 응과대 참여를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가 불참하게 되며 사업 논의는 무산됐다. 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의 불참 사유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응과대가 참여하지



전자정보·응용과학관

(사진=배연우 기자)

않는 사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공간개편사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단과대 대표자와 학과 대표자로 구성된 공간개편 TF에서 논의해 왔다. 출범 이후 공간개편 TF 회의는 3회에 걸쳐 열렸지만 2차 회의 이후 응과대 측이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3차 회의 때, 응과대 학생회는 새로운 학생회 출범으로 TF 위원 변경과 행정실의 설득

을 이유로 재참여를 요청해 회의에 참석했다.

3차 회의 당시, 응과대 측이 TF 재참여 의사는 밝힌 상태였지만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응과대 재학생 대상 의견수렴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응과대 측 대표자로 참석했던 응과대 학생회 맹상현(응용수학 2018) 회장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응과대 재학생 반대

가 심했다”며 “학생 의견 반영 취지의 재학생 대상 찬반 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범한 학생회 주축으로 이뤄진 공간 개편 TF 논의가 무산되며 현 학생회 임기 동안엔 공간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 개편 TF 권세나(생체의공학 2021) 팀장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대상 공간이 학생이 이용하는 자치 공간인 만큼 학생 의견이 최우선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학생회 주도로 논의를 이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은 TF에서 개편안을 합의해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 의견이 합치되었다는 점을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었다”며 “학생 자치공간 개편은 학생이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후보 없음’
문과대학 3년째
비대위 체제 지속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서울】문과대학(문과대)이 ‘입후보 없음’으로 다시 한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체제에 돌입한다. 문과대학 비대위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무산을 포함해 3년째다.

서울캠퍼스(서울캠) 보궐선거는 비대위 체제를 유지 중이던 문과대학, 한의과대학(한의대), 호텔관광대학(호텔대)과 국어국문학과, 물리학과, 약과학과, 의상학과, 자율전공학부가 대상으로 진행됐다.

28일 기준 8개의 선거구 중

한의대, 호관대, 국어국문학과, 물리학과, 의상학과와 선거 개표가 완료됐으며, 약과학과와 자율전공학부 보궐선거는 오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과대는 재작년 11월, 제55대 학생회 역시 등록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그 후 지난해 3월, 보궐선거를 진행했으나 두 번에 걸친 연장 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5월에 두 번째 보궐선거를 진행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이 없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제56대 학생회 선거도 입후보 등록이 없어 비대위 체제가 유지됐다.

양슬지(철학 2023) 씨는 “문과대 자체가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다”며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부분 간식 사업만 진행하고 다른 단과대 체육대회처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선출직이 아니라 학생회에 비해 요구받는 책임감과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 모두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캠퍼스 연극영화학과와 예술디자인대학(예디대) 대상 연장투표가 이뤄졌다. 예디대는 개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후 계획을 논의 중이다.

지은림 교수
학무부총장에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지은림(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 교수가 지난 28일 서울 학무부총장에 새로 취임했다. 지 교수는 “우리학교의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명문 대학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 교수는 교무처장, 연구처장,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